

고속철도, 식품업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기회

베이징지사

폭발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고속철도 이용

- 2017년까지 중국 고속철도 누적 운송여객은 70억 명을 돌파했고 여객운송량은 연평균 35% 증가했으며, 2018년의 중국 고속철도 운행 총거리는 2만 9,000km로 전 세계 고속철도 운행거리의 3분의 2에 달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 고속철도가 발전하면서 중국 승객들의 식문화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전에는 승객들이 내륙 간장거리 이동을 대비해 컵라면·소시지와 같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지만, 거리 간 이동시간이 단축되자 식사보다는 간식이나 스낵을 찾는 승객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현재 중국 고속철도 내 1등석, 특등석, 비즈니스석은 승객에게 견과류, 비스킷, 빵, 음료 등을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열차 내 판매되는 주요 식품도 스낵, 견과류, 절임닭발 등 간식 종류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 고속철도 이용목적 1위는 비즈니스, 2위는 관광이며 이에 해당하는 연령대는 대부분 25~35세로 젊은 소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표적인 견과류 브랜드인 차차(洽洽)는 2017년부터 세련된 디자인의 신제품들을 출시하며 20~30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해왔고, 고속철도 이용객이 폭증하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고속철도 내 광고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편리한 고속철 내의 식사배달서비스

- 2017년 7월 17일부터 중국 고속철도에서 시작한 온라

인 식사배달서비스는 중국 고속철도에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승객은 중국열차 공식예매사이트 '12306'이나 모바일 배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식사를 예약·주문할 수 있다. 승객이 철도탑승 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사업자는 주문받은 음식을 포장해 철도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철도 승무원들은 전달받은 음식을 승객의 좌석으로 배달한다. 승객들은 철도 온라인 식사예약시스템을 통해 열차 식당차량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예약할 수도 있고, 경유하는 역사 내에 입점해 있는 다양한 지역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다.

가공식품 노하우와 물류배송확대 적극 활용해야

- 중국 고속철도의 빠른 성장은 한국 식품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간식과 스낵 등 가공식품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식품으로서 중국의 철도 역사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매장에 입점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선호하고 수입식품에 대해 개방적인 20~30대 중국 젊은 소비계층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대표 물류기업 중 하나인 SF익스프레스(順豐速運·순펑택배)는 2018년 상반기 고속철도 77개 노선을 통해 44여개 도시를 포괄하는 물류 배송업무를 개시했다. 이로써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고속철도를 통해 내륙 중소형 도시로 빠르게 보급될 전망이다. 한국 식품기업들이 고속철도를 통한 물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면, 중국 고속철도 발달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식품의 유통비용을 절감하면서 유통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